

가계재무 전문가 제윤경 씨

재테크, ‘돈’ 이 아닌 미래에 대한 ‘계획’ 에서 출발해야

글_이주연 기자 | 사진_박신우 기자

가계재무 전문가 제윤경(희망재무설계 교육 및 마케팅 본부장) 씨에게 재테크 관련 서적을 추천해 달라고 부탁했을 때 “쉽지 않은데...”라며 난색을 표했다. 재테크 관련 서적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재테크의 기본 방향을 제시해 주는 책’은 찾기 힘들다는 뜻이리라. 《아버지의 가계부》 《불행한 재테크 행복한 가계부》 《부자들의 행복한 가계부》로 이어지는 ‘행복한 가계부 3부작’을 통해 그녀가 가장 열심히 강조했던 것은 “목표와 계획 없는 대박 심리에 기초한 재테크는 위험하다”는 것이었다.

“돈에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라 돈의 주인이 되는 인생과 그 방법을 찾는 데 재테크의 기본이 있습니다. 처음 재테크를 시작할 때 ‘돈’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계획’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장기적인 인생 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 내게 필요한 상품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일반인의 가계재무 상담을 해온 그녀는 경제 사이클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나 계획 없이 ‘대박 심리’를 자극하는 전문가의 말을 믿고 빔을 내서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을 볼 때 안타깝다고 말한다.

“전문가는 금융 상품의 수익률에 대해 일반인들보다 오히려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해요. 재테크에는 인내심이 필수적인데 전문가들의 안일한 예측이 개인의 기대 심리 자체를 너무 높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전문가는 예측에서 끝날지 몰라도 그 예측을 믿었던 개인은 삶의 기반이 흔들릴 수도 문제거든요.”

당연히 그녀가 추천한 3권의 재테크 관련 서적도 ‘이렇게 하면 돈 번다’는 트렌드에 집착하는 책이 아닌 ‘이렇게 시작해야 한다’는 재테크의 기본을 알려주는 책이다.

《마법의 재테크 복리》(우제용 지음 | 굿인포메이

션)는 출발이 건전해요. 인생을 길게 보고 시간의 힘을 통해 복리의 ‘마법’을 설명합니다. 고령화는 제대로 된 노후 대비가 없다면 재앙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시간을 역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복리라는 것을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풀어냈습니다. 그리고 《펀드투자 100문 100답》(제로인 지음 | 미래의창)은 제로인이라는 유명한 펀드 사이트에 사람들이 남긴 질문과 답을 엮어 만든 책입니다. 펀드의 기본 개념부터 거래 방식에 대한 설명까지 과장하지 않고 기본적인 이해를 돕는 데 충실했습니다.”

위 두 권의 책이 재테크 초보자들을 위한 책이라면 그녀가 추천한 또 다른 책 《광기, 패닉, 붕괴 금융위기의 역사》(찰스 P. 킨들버거 외 지음 | 김홍식 옮김 | 굿모닝북스)는 경제 사이클 변화에 따른 사회적 징후를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전문 경제서다. 쉬운 책은 아니지만 사회적 현상과 경제 사이클의 유기적 관계를 통해 우리 경제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준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재테크의 기본은 미래 설계를 위한 가계부”라며 “처음에는 잘 안 되더라도 자꾸 가계부 쓰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고 당부했다. 

